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 노동·자영업계 ‘온도차’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실태 분석' 착수 "취지 공감하지만 현실 고려해야"... 고용축소 우려도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검토에 본격 착수하면서 노동계와 자영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방치된 노동 사각지대 해소 소식이 반색을 표하는 반면,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 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고 밝혔다. 영

세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시간, 근로환경 등을 조사해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의 애로사항까지 함께 분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

고 제한 등 일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이나 부당해고 등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보호 장치가 제한적으로 적용돼,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 역시 노동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단계적 확대

적용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영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경영 압박이 큰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2) "근로자 보호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너무 크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식자재 가격과 임대료, 전기·가스요금까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버티기 어려운 업종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적용이 확대되면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이거나 가족경영 형태로 바꾸는 업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외식업과 소매업 등 영세 업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가족경영 전환이나 무인화 확대를 고민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권 보호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세사업장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 규모를 반영

하고, 인건비 지원이나 노무관리 지원책 등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원칙 아래 단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역시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국민 1인당 스팸 수신량 증가 월 10통 이상...음성 스팸 급증

국민 1인당 스팸 수신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스팸은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음성·이메일 스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전체 스팸 수신량은 10.35통으로 같은 해 상반기 7.91통보다 30.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4.28통으로 상반기 2.13통 대비 2배 늘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메일 스팸은 2.74통에서 3.35통으로 10.9% 증가했다.

이중 음성 스팸 수신량 증가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 유통점의 통신가입 권유 등 전화 영업 활동이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음성 스팸 광고유형별 수신량은 통신가입 1.22통, 불법대출·금융(투자유도) 0.91통 등으로 늘었다. 이메일 스팸의 경우 불법 약품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금융, 기타 광고 순이었다. 문자 스팸은 2.74통으로 상반기 3.04통보다 9.9% 감소하며 지난 2020년 5.87통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용자 신고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탐지를 합한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주름 옷' 매장 운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양한 플리츠 주름 의류를 만나볼 수 있는 '주름 옷 팝업 매장'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주름 옷은 기법과 통기성이 우수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입기에 좋다. 광주점은 '플리츠마' 매장, '요이츠' 매장에서 바지, 티셔츠, 카디건, 스커트 등 다양한 상품을 제한하며 품목별로 최대 30%할인 하는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중기부, 지역 벤처생태계 고도화...5년간 2조 조성

모태 자펀드에 지역투자 의무 20% 부여

정부가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장펀드 확대 조성과 권역별 투자센터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역펀드를 1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역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왔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낸 지역펀드는 엠플러스와 팍트론 등에 초기 투자해 수익률 15.2%, 수익배수 3.4배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내 청산한 지역펀드 평균 수익률도 11.6%로 집계돼 지역투자 역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투자 확대 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올해부터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에 지역 투자

의무 20%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높은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 출자사업 선정 펀드 가운데 80% 이상이 비수도권 추가 투자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지방 투자 우대 제도를 신청한 비중은 지난해 29%에서 올해 83%로 확대됐고 지방 소재 운용사 비중도 같은 기간 8.8%에서 13.3%로 늘었다.

지역 벤처투자 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zy@

금계란 원인은 '담합'...칼 빼든 공정위 산란계협회 시정명령·과징금 5억9400만원 부과

계란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된 대한산란계협회에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민 필수 식품인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등 해당 협회가 담합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협회는 지난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산란계(양계장에서 닭을 키워 수확한 계란)를 사육해 알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증량별(원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할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이 해당 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 가격을 9.4% 인상했다. 원란 생산비는 2023년 4060원, 2024년·지난해 3856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협회의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 2024년 4887원, 지난해 5296원으로 해마다 오르며 기준 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기준 가격의 지속적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 등은 전국 구성사업자들에게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되거나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 가격을 제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태양의 알로에 >
슈퍼겔 맥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건강

1일 면적 당당체 300mg 함유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상무점에서 유니베라 50주년을 맞아 건강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생활 밀착형 건강 캠페인’** 멕시코 농장에서 키운 알로에 묘목을 나누어 드립니다.

2026년 05월 28일 오전11시부터 ‘선착순’

uniVera 유니베라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상무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상무타워 7층 (상무역 지하철 4번출구)
문의: 062.373.0058 대표이사 신영승